

허술한 매뉴얼에 소극적 대처...구멍 뚫린 지역 방역망

신종 코로나 불안감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지역 방역망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전남 최상급 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의 경우 16번째 확진자가 사전 방문시 '코로나바이러스'를 의심하는 2차 병원 내과 전문의의 진료의뢰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과 보건소의 지시만을 내세워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소극적' 의료행위를 펼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염증 확산 방지의 최전선인 선별진료소도 평소에는 의료진 없이 비어있는가 하면, 역학조사관도 자치구별로 한 명씩에 불과해 이동 동선조차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어린이집과 우체국 등이 문을 닫는 데도,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정보 '블로그' 상황도 바뀌지 않고 있다.

허술하고 부실한 대응체계가 오히려 지

전남대병원 찾은 16번 확진자 진단검사조차 안하고 돌려보내
광산보건소에 감염 의심 문의하자 중국 방문 이력 없다며 무시
광주 선별진료소 12곳 대부분 의료진 없고 역학조사관도 부족

역민들 불안감만 키우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장기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 탓만=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A(여·42)씨는 지난달 27일 광주 21세기병원을 찾았다가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21세기병원 전문의가 써 준 진료의뢰서를 들고 전남대병원을 찾았지만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등을 통해 폐렴이라는 진단과 약처방을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는 받지 않고 귀가했다. 전남대병원측은 "25일 저녁부터 발열-몸살 오한 증상 발생돼 변종바이러스 폐렴이 의심돼 전원합니다"라는 21세기병원의 진료 의뢰서에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상 '중국 방문 이력 없다'는 이유로 광산구 보건소

측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해당 진료의뢰서에는 "2016년 폐절제술 후 암진단(서울대병원) 추적관찰 중인 분으로, 2020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여행 다녀옴. 태국 공항출국장에서 상담 안 좋은 사람과 접촉 의심"이라는 내용이 적시됐었다.

그럼에도 전남대병원은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보건소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흉부 X-ray 촬영과 혈액검사를 통해 폐렴약을 처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다. 진단 검사도 면봉으로 간단히 할 수 있고, 폐암 전력상 감염시 일반인보다 위험성이 높음에도 16번 확진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진단 검사는 의료진과 보건소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

고 밝혔으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도 "보건소와 협의 과정에서 의사가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면 검사가 충분히 실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고도 방역 당국 믿었나=16번 확진자 A씨는 지난 27일 직접 광산구보건소에 전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고 불렀다. 하지만 "중국방문을 하지 않았으니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그래도 신종 코로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며 재차 문의하자, 보건소는 1339를 통해 같은 답변을 그대로 전달했다.

21세기병원도 A씨 방문 과정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고 신종 코로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는 의료진 판단으로 광산구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전화를 걸었다가 '중국 방문 이력'이 있어야 의심 환자로 분류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21세기병원 측은 그래도 환자 상태를 의심해 전남대병원 전원을 건의하며 진료의뢰서까지 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측도 동구보건소를 거쳐 광산보건소에 연락했다가 "중국여행 이력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할 것까진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대로 냅뒀다. 결국 현장 상황과 의료진 의견 등은 보건소와 1339의 '매뉴얼 상 중국 방문 이력'에 강고리 무시된 셈이다.

◇제 역할 못하는 선별진료소=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의 최전선 역할을 하는 선별진료소는 광주지역에만 모두 12곳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덩그러니 천막만 세워놓은 곳도 있었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의심환자를 의료기관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해 증상 파악 등 기초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5일 찾은 광주지역 선별진료소 12곳 중 의료 인력이 상주한 곳은 2개 병원과 5개 자치구 뿐이었다.

그나마 선별진료소에는 감염 징후로 알려진 폐렴 여부를 알 수 있는 X-ray 촬영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가 구입 예산을 내려주긴 했지만 운영 인력을 구할 여력이 없어 있으나 마나다.

광주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역

스레이 촬영기기 구매예산을 내려줬지만 촬영 인력도 없고 결과물을 확인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KS병원과 광주일곡병원은 응급실 옆 천막을 설치해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이지만 의료진을 만나려면 병원 응급실 입구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했다. 병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병원 전체가 정전이 없다"며 "전 직원이 바쁘다 보니 선별진료소에 상주시킬 인력은 모자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역학조사관도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지역엔 광주시에 2명, 각 자치구별로 한 명씩 모두 7명의 역학조사관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와 능동감시자 등을 구분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신종감염병 대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역학조사관 확보 및 양성'이라는 설문 조사결과를 내놓고도 여태껏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일 오후 둘러본 광주지역 선별진료소 12곳은 운영 형태가 제각각이었다. 음압형태 텐트로 구성된 곳(왼쪽)이 있는가 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한 천막으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종 코로나 아닌가요?” 잇단 검사 요구에 병·의원 골머리

검체 채취 면봉 없어 조치 안돼
환자들 우기며 곳곳 실랑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아닌가요”
광주-전남지역 병·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지역 내과와 가정의학과-소아과 등에 따르면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료진이 단순한 감기 임을 확인해줘도 '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면 책임지겠느냐'는 식의 항의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병원에는 간혹 중국인 환자가 방문한 경우 대기 환자들이 불안을 느껴 병원에서 나가는 경우마저 있는 등 감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제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일반 병의원들은 환자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검체 채취 면봉'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해주

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체 채취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병·의원은 출입문에 중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하라는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서북구 동운동의 A내과는 지난 4일 태국에 다녀온 뒤로 기침을 한다는 환자가 찾아와 무작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요구해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단

순히 가벼운 기침에도 불구하고, 태국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확진 환자판정을 받은 만큼 자신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우겼다는 것이다.

광주 서구 화정동 B소아과도 가벼운 열감을 보이는 유치원생을 데리고 온 부모가 의료진이 감기 처방만을 해준데 반발해 감염 조사를 요구하자 아쩔 수 없이 구청 보건소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광주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면 무조건 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 안내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면허 운전 10대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 1명 사망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동승했던 동료가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광장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A(17)군이 몰던 에쿠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B(여·55)씨의 그랜저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에쿠스 차량 보조석에 타고 있던 A군의 친구 C(17)군이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크게 다쳐 병원으

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그랜저 차량 운전자 B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경찰은 차량 탑승자들을 상대로 A군이 농성동 농성광장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A(17)군이 몰던 에쿠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B(여·55)씨의 그랜저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에쿠스 차량 보조석에 타고 있던 A군의 친구 C(17)군이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크게 다쳐 병원으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요양원 화재...인명피해 없어

5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 서구 서창동 여향요양원 1층 창고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300만원의 재산피

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12명과 간호사 2명, 원장 가족 등 20명이 있었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리면서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등산 교량 난간 파손 사망' 부실 관리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무등산 교량 난간 관리를 소홀히 해 등산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31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운림동 무등산 중심사지구 내 산책로 구름다리에 기대고 있던 A(여·69)씨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다리 3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 동구청 B(54) 팀장 등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다리 관리 부실에 따른 난간 붕괴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동구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